

교회:

부서:

이름: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 청장년부 공과

## 제 10 권

다른 사람들과 함께



# <청장년부 공과 제 10 권>

주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영적 의무)

공과	제목	쪽
제118공과	나를 따라 오너라	1
제119공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4
제120공과	하나님의 사랑	7
제121공과	신자들의 하나됨	10
제122공과	증거의 책임	13
제123공과	누가 내 이웃인가?	16
제124공과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격려함	19
제125공과	마귀를 대적하라	23
제126공과	보복하지 말라	26
제127공과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의무	29
제128공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31
제129공과	혼인의 책임	34
제130공과	부모의 의무와 자녀의 의무	37

##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기본적인 가르침의 밑바탕에는 그리스도인이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으로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 중 하나를 위반하거나 무시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지침을 받아들이고 그 지침을 인간 관계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유익과 상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번 분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침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할 때의 책임을 설정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 봄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과 목회자(사역?),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과 영적으로 약한 사람, 이웃간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간에게 보여졌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대해 배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탄에 대한 방어를 구축하고 그리스도인을 전복시키려는 그의 시도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가늠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6-17).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교훈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귀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 제118공과 나를 따라 오너라

성경본문: 마태복음 4:18-22, 11:28-30, 16:24-27

보조성구: 마가복음 10:17-21

요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태복음 16:24)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께 복종하면 것처럼 복된 분과의 복된 관계를 맺게 된다. 이 관계는 우리의 다른 모든 인간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러하다.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다 모시면 그 분은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그의 교훈을 따라 가르쳐 주신다.

1. 오늘의 첫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이 두 번째 본문(마 11:28-30)에서는 누구나 오라는 보편적인 초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단계들을 설명해 보라.

2.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의 짐에 비하면 쉽고 가볍다. 그러나 사람들은 ‘멍에란 무겁다’ 라고 생각하여 그 이상의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곧 멍에를 매면 실제로는 짐과 노력이 경감된다. 약하고 덜 훈련된 짐승일수록 튼튼하고 리더격인 짐승에다 맨다. 그러면 리더격인 짐승이 더 무거운 짐을 끌거나 혹은 대부분의 무게를 감당하게 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의 유익을 들어보라.

3.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 중 “따라 오너라”의 뜻을 사전적으로 설명하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4. 두 제자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성경에서 그 반대 반응을 보인 인물 하나

를 들라.

5. 두 제자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됨으로 해서 그들이 접촉한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나타났던가?(참조 행 4:13)

6.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목둘레의 장식용 십자가 사슬이나 혹은 윗도리 양복의 장식용 편이나 교회당 정문의 광택 나는 십자가 상징물을 말씀한 것이 아니었다. 주님은 문자 그대로 자기부인과 희생의 증거인 고통과 죽음의 도구로서의 거친 십자가 형틀에 달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신자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또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7. 마태복음 16:26절의 말씀, 곧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를 설명하라.

8. 갈라디아서 5:22,23절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 몇을 보여준다. 이것들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라.

## 해 답

1.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루셨다고 믿어야 한다.

2. 주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교훈하시고 지적하시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짐의 무거운 족을 담당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 반면 우리가 사탄의 멍에아래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유혹하여

결단내고 말 것이다. 마가복음 5장의 마귀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이용하여 사탄의 멍에에 결박된 결과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및 쉼과 비교하여 보라. 이 성경실례를 입증해 주는 다른 성경의 실례를 들라.

3. 사전적으로 정의하여 보면 “가까이 따르다, 모델로 삼다, 한 마음으로 행하다, ~의 권위를 받아들이다, ~의 견해나 사상을 지지하다, 가까이 보거나 듣다”이다.

4.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다. 벨릭스, 부자 청년 등등. 두 제자의 인생말로와 벨릭스 등의 인생 말로는 전혀 달랐다. 그런 상반된 결과는 그들의 서로 다른 선택에서 왔다.

5. 두 제자는 “공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약점이 있었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분께 배운 결과 당시의 유대 공의회를 경악시킬 만한 어떤 지혜를 지니고 있었다. 그 외에도 그들에게는 예수와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모신 신자들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향기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향기를 예민하게 맡는다.

6. 안락한 삶을 꼭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대신 시련과 역경이 오면 능히 감당하겠다는 생각을 품어야 한다. 그리하면 헌신적으로 자기 십자를 지고 가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금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천국의 보화를 누릴 것이다(참조 막 10:3))

7. 세상에서는 자기 체면이나 재산이나 소득이나 경력 등을 귀히 여긴다. 그러나 자기 목숨보다 그것들이 더 귀할 수는 없다.

8.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친밀하면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다.

## 제119공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복종함

성경본문: 에스겔 33:1-11 ; 예레미야 3:15

보조성구: 에베소서 4:11-17 ; 데모데전서 5:17 ; 베드로전서 5:1-5

요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데살로니가전서 5:12,13)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무리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하고 있다. 또 그들의 충성여부를 장래에 심판하리라고 경고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영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1.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무슨 준비를 하셨는가?(요1:17 ; 벰후 1:21)

2. 율법시대의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말씀에 절대 복종하여야 했다. 불순종하면 형벌, 곧 많게는 죽음 당하는 벌이 내렸다(히 10:28).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영적 감독자로 세우신 이들에게 우리가 복종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여야 할 이유를 설명하라.

3. 신약 교회시대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할 자들로 누구누구를 세우셨는가?(엡 4:11,12)

4. “목사”란 통상적으로 교회 회중의 지도자이다. 웹스터 사전은 “양떼를 치는 목자 혹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꼴을 먹이는 자”라고 한다. 성경시대의 양 치는 목자의 책임 몇을 열거하라. 또 이를 오늘의 목사의 의무들과 비교하라.



5. 목사는 교회 회중을 위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하며,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신실하게 돌보아 주어야 한다. 이 일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라.

6. 세상 학교에서 학생들은 종종 자율적인 사고와 권위에 대한 반항을 배우고 또 간접적이기는 하나 연장자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히 13:17)은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가?

7.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과 부모와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몇 살 때에 가르쳐야 하는가?(사 28:9)

8. 하나님은 목사들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있는가?(딤후 2:6,8) 목사의 거룩한 삶은 교회 회중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9. 우리 평신도가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의 결정을 따지고 들며 그 이유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

## 해 답

1. 자기 뜻을 보이기 위하여 율법과 선지서들을 그 도구로 택하셨다. 족장시대에는 족장들(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영적 지도자로 삼으시어 그 가족과 가솔들을 돌보셨고 모세 율법이후로는 모세와 제사장들을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백성의 대표자들이었고, 백성은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갔다. 곧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의 영적 복지에 관심이 있으셨고, 이에 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셨음을 보게 된다.

2. 구약시대처럼 즉시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형벌이 가해지지는 않겠지만 대신 불순종할 경우 영적으로 사망에 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3. 사도들, 감독들,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교사들.

4. 꿀과 물을 찾아 주고 해치는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은신처도 마련해 주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점고하여 보호하고 병들기라도 하면 돌봐 주어야 하였다. 오늘의 목사들도 그 할 일들이 영적으로 같다 할 것이다. 회중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목사들의 교훈을 경청하여야 한다.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5. 목사는 자기가 책임진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상담한(실패하였든 성공하였든간에)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계하여야 할 것이다.

6. 세상의 학교들은 부모와 스승과 연장자들과 목사들에 대한 존경을 결한 가르침을 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권위를 부여받은 이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됨을 명령한다!

7. 아이의 성격은 학교 가기 전에 형성되기 때문에 어릴수록 일찍 순종을 가르쳐야 늙어도 그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배운 자가 복 있을진저!

8. 젊은이를 근신시키고, 선한 일에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건전하고 정중하며 책잡히지 않는 바른 말을 함.

9. 목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함으로 양무리에게 해가 되는 일은 일체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도 자기네 유익을 위하여 그리 한 줄 알고서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함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같이 순복함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순종한 결과 축복을 받았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 제120공과 하나님의 사랑

성경본문: 마태복음 1: 21, 2:1-15 ; 요한복음 16:27

보조성구: 베드로전서 1:8 ; 요한일서 3:8, 4:9,10

요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요한일서 4:9)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핵심 열쇠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실 뿐더러, 사랑 자체이시다. 모든 인간의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인간을 향한 것이든 간에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만일 사랑이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죽은 것이요 무가치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야 한다. 형제 뿐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여야 한다. 사랑은 모든 성도의 미덕들 뿐 아니라 성도들 자체를 한 가지로 묶는 끈이다.

1.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고하신 “선물”이라고 말한다(고후 9:15).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라. 세상의 선물들의 특성을 하나님의 이 선물과 비교해 보라.

2. 선물들에는 그 나름의 특성들, 곧 선물의 유용성과 독특성과 가치성과 근원 및 영속성 등이 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예수 그리스도)의 각 특성들을 간략하게 말해보라.

유용성

독특성

가치성

근원

영속성

3. 예루살렘에 온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인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성경지식이 거의 없는 듯하다. 그들은 이 새로 나신 왕을 찾는 동안 많은 장애물과 문제들에 부딪혔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는 수

단(별)을 마련하시어 그들의 소원이 이뤄지게 하셨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써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하시는가?

4.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가져온 예물들은 그들의 애초 생각을 초월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황금은 신성을 대표하고, 유향은 제사장 직을 대표하고, 몰약은 고난을 상징하였다. 아래 성구들을 각 예물들과 짝을 맺어보라.

이사야 53:4,5

누가복음 1:35

히브리서 5:6

5. 천사가 요셉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라.

6.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와 요셉이 지은 것이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전해준 이름이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히브리어 명인 “여호수아”를 음역한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성경(빌 2:9-11)에서 찾아보라. 또 당신의 이름의 뜻을 설명해 보라.

7.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인간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성경(골 2:10)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예수께 주어진 명칭들을 들겠는데 그 뜻을 설명해 보라.

기묘자

상담자

선한 목자

생명의 떡

## 해 답

1. 보상을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거저 온 인류에게 기쁜 마음으로 선물로 주셨다. 이를 고맙게 받는 것이 곧 믿음이다.

2. 유용성:그 분 외에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없음. 독특성:그 분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가치성:오직 하나님과 동등하신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다. 하늘나라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 영속성:영원하심

3. 어떤 이에게는 설교나 성경공부를 통해서, 또 어떤 이에게는 친구나 성도의 거룩한 삶을 보게 하심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구원간증 책자나 성경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모든 인류에게 전해진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소원성취(구원 등)가 이뤄질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몫이다.

4. 차례로 “몰약으로 대표된 그리스도의 고난”, “황금으로 대표된 그리스도의 신성”, “유향으로 대표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측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리의 희생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지위를 나타낸다.

5.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에 의한 것으로 그 예언이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포함한 것임을 나타낸다.

6.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우월하시므로 어느 날엔가 모든 혀들이 “그 분은 주이시다”라고 강제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동서양 문화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적절한 뜻을 부여하여 짓는다. 곧 그렇게 지어진 이름은 아이의 장래 바라는 바 성품이나 가족 내에서의 어떤 위치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우리 구주의 이름을 그같이 지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그같이 온전히 드러내신 것이었다.

7. 순서대로 “놀랍고 기적적인 분이심”, “지휘자, 가르치시는자”, “돕는자(보혜사)”, “인도자, 양육자”,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

## 제121공과 신자들의 하나됨

성경본문: 에베소서 4:1-6 ; 빌립보서 2:1-4

보조성구: 고린도전서 1:10 ; 베드로전서 1:22

요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베드로전서 3:8)

본 공과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미 살핀 대로 좋은 관계는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또한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시작된다. 오늘의 주 요절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 하나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매일 이뤄지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것이며 또한 주님의 일들이 많이 성취될 것이다.

1. 두 세 사람이 하나 되어 일함으로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예를 성경이나 다른 데서 들라.

2. 오늘의 주 요절과 본문에 나오는 다음 단어들의 의미를 설명하라.

체휼

세움 (교화함)

힘씀

용납함

3. 성경(엡 4:2)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한다. 누가 당신을 용납해 준 체험을 하나 말해 보라.

4. 당신의 신체의 연합과 그것이 깨졌을 경우(질병)를 생각해 보라. 또 에베소서 4:15,16절의 뜻을 설명하라.

5.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아담 클라크는 “일치하여”란 말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 말은 그들의 모든 생각과 애정과 욕구와 소원이 한 가지 대상에 집중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견해 상 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한 가지 욕망만을 가지며 오로지 한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마음의 그것을 한 가지로

아뢰는 상태를 뜻한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교회)이 한 가지로 일치하였을 때의 유익을 말해 보라.

6. 기독교의 연합과 세상의 정당이나 조합 등의 조직에 나타나는 연합의 차이점을 말하라. 기독교의 연합을 계속 보존함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라.

7. 요한복음 17:11-23절은 “하나됨”의 필요성을 무려 네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 이 성구들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8.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영적 역할 다섯을 들고 그 다섯을 주신 이유를 말하라.

9. 사람은 저마다 그 성장배경이나 성격이나 편애함이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신자 간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10. 하나됨을 방해하는 어떤 상황이 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해 답

1. 베드로와 요한(행 3:1-11), 바울과 실라(행 16:25-34) 등. 갈등하지 않고 하나 되어 일할 때는 세상일들도 형통하나 이것이 영적인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 차례로 “도와주고픈 마음이 간절하여 깊이 동정함”. “특히 좋은 모본으로 교육하고 개선시킴”. “노력하고 분투하며 애씀”, “참고 인내함”. 신자 간에 하나됨이 저절로 오지 않음을 이들 단어들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3. 서로 용납함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다.

4. “발의 장애”는 뇌와 발간의 연합을 파괴하여 그 결과 뇌가 아무리 발에게 걸으라고 지시하여도 발은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는 그 바라는 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머리(그리스도)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한다.

5. 복음의 확장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부을 수가 있다.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체들 간의 차이점들을 개선하는 데 힘을 집중하기보다는 복음 전파라는 더 큰 목표이다. 그 눈을 돌려 하나됨을 이끌어내야 한다.

6. 기독교의 연합은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굴복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기에 그 영적 유대감이 견고하나, 세상 연합은 그 점을 결여하고 있어서 깨지기 쉽다. 기독교의 연합이 신자들 간에 없다면 그것은 세상의 다른 조직과 다른 게 없다.

7. 주님이 몸소 “하나됨”을 중요시하시어 것처럼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셨으니.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성령이 계시는 참 교회에서는 하나됨이란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8.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것들을 주님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교회)을 세우게 하려 함”이셨다. 지도자의 역할은 소수에게만 주어진다. 지도자들이 아니라도 각 사람(지체)은 저마다 해야 할 직무들이 있다. 성경(엡 4:13)은 각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도록 하라고 말한다.

9. 영적 목표가 같으며 가능하다. 교리적인 차이가 아니고 다른 차이라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최우선시 하여 더욱 하나 되고자 노력하면 될 것이다.

10. 마태복음 18:15-17절을 요약하여 그 결과의 중요성을 묵상하라.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가 안 될 경우는 그 배후에 마귀의 훼방이 있을 가능성을 통찰하여야 한다. 마귀는 대적하는 길 밖에 없다.



## 제122공과 증거의 책임

성경본문: 사도행전 16:13-32 ; 마가복음 16:15 ; 누가복음 15:1, 24:47

보조성구: 야고보서 5:20

요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다니엘 12:3)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증거의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행 1장)고 하셨다. 지금도 그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목적은 동일하시다. 자기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증거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 모두가 다 외국에 선교사로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함에도 여전히 복음 확장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바다 건너편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다.

1. 복음을 “증거 한다”의 뜻을 설명하라. 또 거듭나지 못한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증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라.

2. 말로 증거 할 때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객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체험으로 주관적으로 하든지 할 수 있다. 마가복음 5:18,19절과 사도행전 8:35 절의 증거들은 이중 어느 쪽인가? 모든 성도가 증거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오늘본문은 바울을 “주로 말하는 자”로 언급한다. 그의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 중 어느 쪽인가?(행 26:9-19 참조)

4. 바울과 실라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 빌립보 간수에게 “말로써 무슨 증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간수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물은 것을 보면, 그같이 말하도록 만들었던 무슨 증거들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게 무엇이였을까?

5. 평소 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라.
  
6. 가다라 지방의 그 귀신들렸다가 나온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어떤 간증을 하였을 것 같은가?(막 5:1-20) 이 간증을 구약성경의 한 작은 계집종이 나아만의 처에게 했던 간증과 대조해 보라(왕하 5:1-3). 다른 주안점은 무엇이었는가?
  
7. 오늘본문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한다.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이 없는 평신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여 설명해 보라.
  
8. “예수를 증거 하라”는 성경의 명령은 몇 특정 인사들에게만 주시는 영적 은사의 일종인가? 아니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인가?(벧전 4:15)

## 해 답

1. 자신이 “체험적으로 보고, 듣고, 겪은 바를 다른 이들에게 알게 한다함”이다. 죄인은 체험적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니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래야 될 수 없다.
  
2. 마가복음의 증거는 주관적인 것이고 사도행전의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다. 성도는 이웃에게 증거 할 때 한 두 가지를 적절히 사용하면 될 것이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거 할 수 있어야 하나 자기가 성경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을 주관적으로 말하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들이 없을 것이다.
  
3.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 하는 것(객관적인 것)과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체험을 간증하는 것(주관적인 것)을 둘 다 하도록 임명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4. 말 이외의 다른 증거법들도 많이 있다. 그들의 인격이나 태도가 아주 고상

하고 귀품이 서려 있어서 간수에게 감화를 끼쳤을 것이다.

5. 이웃을 구제하거나 항상 친절하게 대하거나 형제들에게 우애를 보이거나 사랑을 보임.

6. 자신의 과거생활과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간증했을 것이다. 성경은 모든 이들이 놀랐더라고 말하고 있다. 작은 소녀는 그런 간증은 없었고 단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병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증거 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이들은 그들의 간증이 종종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 흉악한 큰 죄악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 같은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모든 성도는 크든 작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체험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간증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어느 모로든 유용하다.

7. “전파하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선포하라”는 뜻이다. 곧 어떤 장소나 형태에도 제한 받지 않고 전할 수 있다함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각처로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행 8:4). 증거의 바른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8.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8절의 명령을 순종한 결과 오늘의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받았다. 주변에서 전도 받아 회개한 이들의 예를 모아 보라.

## 제123공과 누가 내 이웃인가?

성경본문: 누가복음 10:25-37

보조성구: 신명기 15:7 ; 이사야 58:10 ; 마태복음 25:34-46

요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갈라디아서 5:1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돕기 위해 먼 거리를 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까지 한다”는 아름다운 본을 남기셨다. 오늘본문의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 이웃이란 국적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매일 만나는 바로 그 사람들임을 보여주신다.

1. 그 율법사는 예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다. 좋은 질문이기는 했어도 그 속에는 그의 불신실성을 보여주는 암시도 들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적으라.

2. 성경(요 4:4-29, 21:8,9,12,13)은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형제애를 보여 주신 사례 둘을 거론한다. 그 두 경우에서 주님은 어떤 식으로 봉사하셨던가?

3. 누가복음 11:5-18절에서 친구가 달라고 한 것을 주지 못한 것에 주인은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가? 그런 변명이 찾아온 친구에게 받아들여졌던가? 친구가 안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하라.

4. 구약시대 제사장의 의무 중 하나는 짐승을 잡아 희생을 드리고 분향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을 도왔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의무 중 실패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5.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모멸감을 받으면서 살았

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과는 일체의 상거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의 고통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6. 요한복음 5장은 당시 심각한 신체적 중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에 관하여 말한다. 그 본문 7절은 그가 고침 받지 못한 이유를 든다. 아래에 적어 보라. 또 신체장애나 불구자들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여야 할 의무와 이 본문기사와의 관련성을 설명하여 보라.

7. 이웃사랑과 관련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래 성구에서 찾아 쓰라.

마태복음 5:16

요한복음 13:35

로마서 15:2

에베소서 4:32

요한일서 3:16

8. “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오늘의 주 요절을 묵상한 후 우리가 우리 몸과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또 물질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몇 적으라. 이와 똑같이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적으라.

## 해 답

1. 본문 25절의 “시험하여”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이다. 그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존대하여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놀랄만한 사례 하나를 말씀하여 주셨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불량한 자들에게도 존대함으로 대하여 그를 내 몸 같이 사랑하여야 할 우리 이웃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영적 필요에 관하여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고 자기 제자들에게는 배불리 먹여 주셨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힘쓸 일도 바로 우리 이웃의 영적 필요와 물질적인 배품 등이다.

3. 문이 닫혔고 자기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고 변명하였다. 친구는 그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팔레스틴의 가옥 구조상 아이들은 거실 마루에서 자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곳으로 친구가 찾아 왔었으니 온 집안은 소동이 났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도움의 요청이 올 수도 있다. 그래도 도와주어야 한다.

4.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실천하지 못했다.

5. 각자 성경에서 찾아 묘사해 보라. 이 이야기 끝에 주님은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고 하셨다. 곧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하심이다.

6.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그곳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다. 38년간 비참한 몰골로 살면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누군가가 도와만 준다면 건강해 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당시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는 자칭 의인들이나 종교인들에게 쓰디쓴 감정을 품었을 것이다. 마귀는 남의 불행에 무관심한 자들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불행한 사람들의 마음에 악감정을 부채질 하는 간악한 자이다.

7. 차례로, “선한 일들을 하라, 사랑을 보여주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라.”

8.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추우면 입고, 피곤하거나 잠 오면 누어서 쉬거나 잠을 자려고 할 것이고, 또 실수하면 자신을 변명하고 영적 목마름으로 인하여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들은 다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이웃에게도 같은 식으로 하면 된다. 이웃 사랑은 내키지 않아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 제124공과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격려함

성경본문: 이사야 35:3,4 ; 요한복음 13:34,35, 15:12-17

보조성구: 전도서 4:9,10 ; 갈라디아서 6:1,2

요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린도후서 1:24)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는 보람되고 성취적인 삶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자기 자신과도 화목해진다. 이런 내적 만족감은 영적 연약성과 낙심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성도가 보여주는 봉사와 사랑으로 확대되어 입증된다. 이웃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선을 행하고 사랑하도록 영감을 복 돌아주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말씀 전반에 걸쳐 여러 모로 나타난다. 성경에서 사랑에 관하여 가장 분명히 나타난 표현 중 하나는 이렇듯 “이웃과 공유하는 사랑”이다. 우리가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들은 우리의 시간, 달란트, 힘을 가지고서 영적으로 격려하거나 붙들어 줄 필요가 있는 자들을 특별히 세워주는 것일 것이다.

1. 누군가를 격려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 방면을 볼 수 있는 영적 관찰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가 영적 연약성을 보여주는 무슨 표시라도 있다는 것인가?

2. 우리의 형제자매가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방관하지 않고 도와 주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이사야 35:3,4절은 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셋을 언급한다. 이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방법 몇 가지로 쉽게 표현해 보라.

4. 거룩함에 흠은 없으나 영적으로 약한 사람과 복음의 깊은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이 두 유형의 약한 신자를 다룰 때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5.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신약성경의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는 “보혜사”(돕는 자)란 뜻으로써, 성령을 묘사하는데 쓰였다. 문자 그대로 “곁에 부름을 받은 자”란 의미이다.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할이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영향을 위한 모형이 될 수가 있는가?

6.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에스겔 34:10절과 마태복음 25:44-46절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보라.

7.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으신 “종”의 모본자이셨다. 성경(빌 2:7)은 그 분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했다고 말한다. 그 분은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돕고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또한 영적으로 궁핍한 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하셨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는 이런 궁핍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가 나와 있다. 어떤 격려인지를 다음 성구에서 찾으라.

아브람에게(창 15:1-6)

기드온에게(삿 6:11-23)

다윗에게(삼하 7:8-16)

중풍병자에게(마 9:2)

제자들에게(마 14:25-27)

8.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적고 영적으로 약한 자들 도와주고자 할 때 이 계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도 설명하라(요 13:34,35)

9. 요한복음 15:13절의 깊은 뜻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하라.

10. 당신이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격려가 되었던 성경약속이나 말씀을 적어 보라.

## 해 답

1. 그렇다. 가령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굳어 있다든지, 평소와는 달리 기도를 덜 한다든가, 하나님 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바란다든가 하는 점들이 그 영적 연약성의 한 표시가 될 수도 있다. 친한 사이라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



을 것이다.

2.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선 말을 걸되, 부정적으로 “너 요즘 교회를 자주 빠지는구나”라고 말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네 얼굴을 보니 몹시 반갑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항상 기도하는 성도라면 성령께서 상대방을 격려할 지혜로운 말이나 장소나 방법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서 접근해야 한다(고전 9:26).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내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전 9:22).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목사님이 나서서 다뤄야 할 경우를 선불리 나서서 주제넘게 다루려고 하지 말 것과 또 권위가 있는 체 하지 말라함이다.

3. 말로써 격려하되 자신이 체험해서 깨달은 지혜로써 하고 그것도 매일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라. 또 주님이 당신과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일들에 관하여 이야기 해주며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전화하거나 찾아오도록 하여 함께 어떤 문제를 고민하며 기도하라. 또 성경을 보는 중에 그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삶의 자세를 갖도록 당신을 예로 들어 보여주며 그의 친구가 되어 주라.

4. 참 성도는 모든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과 우정과 동정을 보일 것이다(갈 6:10).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고자 하는 성도라면 그 갈급함이 눈에 될 것이다. 곧 오랫동안 기도대에서 씨름하거나 은혜와 진리에 목말라 하거나 영적 성장에 관한 질문을 해 오거나 혹은 모든 일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거나 성경을 상고하여 해답을 찾거나 하는 증상들이 보일 것이다.

5. 성령님은 항상 신실하시어 우리가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그곳에 계셔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와 선생이 되어 주시며 괴롭고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러한 성령님의 속성들은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도울 때에도 그대로 나타나셔야 한다.

6. 에스겔의 그 구절은 “목자의 책무를 빼앗아 버린다”함이고 마태복음의 경우는 “평신도들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영영한 형벌에 떨어진다”함이다. 이들 두 성구들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선행으로 인한 축복도 빼앗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그 있는 구원마저도 빼앗긴다고 함을 경고한다.

7. 차례대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실 것과 승리를 약속하심”,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될 것과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심”, “중풍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심”, “폭풍우 중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심으로 위로하심”. 이처럼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신속하게 도우신다.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도 이같이 해야 한다(참조 고전 9:19).

8.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이다. 영적으로 약한 성도

를 도와주고자 한다면 그가 영적으로 약한 부분을 강하게 세워주고자 격려하며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언행도 조심하여 걸림돌이 안 되게 하여야 한다.

9. 주님이 원하시는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자원해서 하라 함이다. 그러려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생각 등을 포기하고 우리의 시간과 수고를 쏟아야 한다.

10. 내게 도움을 준 그 말씀이나 약속은 곧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울 때도 유용하게 쓰인다.

## 제125공과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본문: 욥기 1:1-22

보조성구: 마태복음 4:1-11 ; 에베소서 6:13-18

요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베드로전서 5:8,9)

지금까지 배운 “관계”에 관한 공부들은 긍정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거둬나가는 순간부터 직면하게 되는 불유쾌한 상황이 있다. 이처럼 마귀의 능력은 실제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에도 일정한 한계를 정하시어 더 이상은 나가지 못하게 하신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에 도덕적인 자유의지자로서 지음 받았다. 이 때문에 사람은 흑암의 맹렬한 권세들에 저항하든지, 아니면 굴복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그 마음에 지니고 있다. 하나님은 마귀를 저항할 수 있는 무기를 마련하실 때, 사람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수단도 주신다!

1. 성경은 사탄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낸다. 아래 성구들에서 그것들을 찾아보라. 그리고 이들 이름에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4:3

마태복음 13:19

요한복음 14:30

고린도후서 4:4

에베소서 2:2

요한계시록 12:10

요한계시록 20:2

2. “네가 어디서 오는냐”는 주님의 물으심에 사탄은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다 왔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지금도 사탄이 그와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상의 성구를 들라.

3. 욥은 영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는가? 그에게 닥친 네 가지 비극을 들라(욥 1장).

4. 이런 비극들 앞에서 욥은 즉시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5. 하나님은 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는가?

6.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실 적에 하늘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가?(마 3:16, 4:1,11)

7. “대적하라(저항하라)”는 말의 뜻을 정의하라(약 4:7 ; 벰전 5:9).

8. 성경(엡 6:14-17)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여섯 가지 영적 무기들을 들라.

9. 요한계시록 12:10,11절은 무엇으로써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나?

10. 당신이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긴 싸움을 하나 들라. 무엇으로써 이겼는가?

## 해 답

1. “시험하는 자, 악한 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마귀, 뱀, 용”. 사탄의 이름들을 통해 그 정체를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의 꾀계를 더 잘 알게 되어 두려움 없이 그와 싸워 이길 수가 있다. 그는 우리의 철천지원수이다.

2. 오늘의 주 요절. “사자가 먹이를 찾아 어떻게 활동하는 지를 본 적이 있는가? 사자는 몸을 은밀히 숨기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포효소리로 먹이감의 얼을 뺨 후 일시에 달려들어 잡는다. 마귀의 유혹수법이 꼭 그러하다.

3. 완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 모든 소와 나귀들을 약탈당하고 그 모든 종들이 하나만 빼고 다 죽임을 당했으며 또 모든 양떼들과 그 종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멸절했고, 악대들과 그 종들도 빼앗겼으며, 일곱 아들과 세 딸마저도 무너진 집에 깔려 죽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비극들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온 것이었다함이었다. 마귀는 이런 시험으로 욕이 죄짓도록 유혹하였으나, 하나님은 욕이 견딜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그렇게 시험을 허락하셨다. 욕은 자기 비극의 이유를 몰랐으나, 하나님께로 피하였다. 이 길만이 승리의 길이다.

4. 자기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영적전쟁이 벌어지면 먼저 하나님께 피하여 그 은혜를 사모함이 중요하다! 큰 싸움

뿐 아니라 사소한 일들도 그같이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5.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이 어떠한지 드러내시고자 하셨다. 누구나 모든 성도는 자기가 시험을 받기까지는 마귀에게 저항하여 자신을 지킬 방도를 잘 깨닫지 못한다. 시험 당할 때, 욥기 1:22절을 거울삼아 자신을 지킴도 좋은 한 방도이다.

6.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와 싸우셨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싸워야 한다. 이렇듯 성경말씀은 중요하다. 그것을 암송하든 묵상하든 혹은 주의 깊게 연구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의 삶에서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시 91:11 ; 행 7:7-10 ; 히 1:13,14, 13:2)

7. “압력을 견뎌내다”. “반대를 물리치다”, 혹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힘을 다하다”이다. 곧 이 말은 “방어와 공격”의 이중적인 뜻을 지닌다. 최선의 방어는 곧 공격이기도 하다.

8.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 여섯 가지 무기들의 뜻을 묵상하라.

9.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써”, 마귀는 두려움과 거짓과 허세로써 우리를 공격하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서 담대하게 대적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10. 누구나 시험은 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 제126공과 보복하지 말라

성경본문: 마태복음 5:38-48 ; 로마서 12:17-21

보조성구: 사도행전 7:57-60

요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잠언 24:17)

마귀와 그 추종자들은 유사 이래 지금까지 성도들을 괴롭혀 왔다. 인간의 본능은 상처 받거나 공격받으면 보복하거나 해치려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는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신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환란과 핍박을 받아도 굳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1.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는가?

2. 원수에게 우리가 사랑을 보일 경우, 하나님은 무엇을 되돌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눅 6:35,36)

3.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원수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눅 6:27,28) 원수를 사랑함으로 해서 그리스도께 돌아 오는 이들을 성경이나 혹은 주변에서 찾으라.

4. 로마서 12:17,18절은 우리 성도가 신자들이나 불신자들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됨을 말하는가?

5.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들라(잠 24:29). 자신에게 잘못된 자에 대하여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벧전 3:9)

6. 마귀가 그 추종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위협을 가했을 때 교회 성도들은 이에 보복했던가?(행 4:15-31)

7. 지금까지 원수의 공격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에 관해 다뤘다. 그러나 마귀는 종종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까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악감정을 품게 하려고 시도한다.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보복하고자 하는 시험이 올 수도 있는 경우 몇을 들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주님은 기뻐하실까?

8. 원수가 이런 말썽대로 행치 못하도록 생명에 위협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행 5:27-29)

9. 우리가 단지 성도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나?(벧전 4:12-16)

## 해 답

1. 반격하지 말고 필요할 경우에는 도리어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성도의 참 모습을 보여주라 하셨다. 이 상황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설명하라. 대적하는 자들의 반대가 항상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다. 언어적인 폭력과 훼방과 따돌리는 것들도 있다.

2. 장래 받을 상급이 크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무슨 문제를 처리할 때 말씀을 따라 바로 다루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신다. 그리고 현세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3.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오게 되는 그 결과들을 생각해 보라. 빌립보의 간수(행 16:29-34)나 본 교회의 어떤 성도의 간증(“다른 사람의 범죄로 치룬 옥고”) 등이 그 한 예이다.

4. 하나님의 자녀는 보복해서는 안된다. 누가 성질을 돋구더라도 정직하며 화평하게 나가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5. “내가 당한 만큼 나도 보복하겠다”는 식이다. 성도는 보복하거나 악행하지 않고 복을 빌어준다. 죄인은 자신의 악을 선으로 되갚는 성도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성령이 감화하시면 그런 상황에서 죄인들은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6. 보복하지 않고 합심 기도했다. 그들은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7. 큰 소리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노기를 띠거나, 격한 태도로 응수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불평하거나, 자신을 고소한 자들을 맞고소하는 것 등의 행동을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기준으로 행하면 될 것이다.

8.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사람의 법과 상충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한다. 많은 순교자들과 옥중에서 고난을 감내한 자들의 경우가 다 이에 해당한다.

9.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한다. 앞서 간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은 그들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았고 그 영혼을 능히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벧전 4:19). 고난을 기뻐하면 평시보다 기쁨이 배가된다.



## 제127공과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의무

성경본문: 에베소서 6:5-9 ; 디모데전서 6:1,2

보조성구: 신명기 24:15 ; 골로새서 4:1 ; 디도서 2:9 ; 베드로전서 2:18

요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태복음 7:12)

하나님의 율법은 종종 두 가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와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 부분이다. 동료(이웃, 부하나 상사)에게 무관심하고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다. 온 세상은 어떤 교훈을 듣기 전에 먼저 그 샘플을 본다. 아마도 직장의 그리스도인 노동자의 품행에서보다 더 많이 기독교가 관찰 당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1.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져야 되는 책임은 무엇인가?(성경본문과 골 4:1절 참조)

2.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져야하는 제일 중요한 것을 들라(엡 6장). 또 이게 중요한 이유는?

3. 피고용인들은 종종 사장이 “너무 인색해서 급료를 적게 준다”거나 “설 틈을 안 주고 일 욕심이 많아 일만 시킨다”고 불평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장은 계약대로 급료를 지급하기에, 자기 원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성경은 피고용인들이 고용주에게 인격 모독적인 언사를 해도 된다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라.

4.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를 설명하라.

5.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라. 앞 4번 질문에서 인용된 성경말씀이 “점심시간이나 차 마시는 시간”등을 계산하는 것들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6. 고용인과 피고용인 중 누가 가장 중요한가?

7.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최고의 충성심으로 섬길 때의 결과를 들라.

8. 오늘의 주 요절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다 적용하여 설명해 보라.

## 해 답

1. 부당한 해고나 규정이외의 일을 강요하지 말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해야 한다.
2. 복종이다. 피고용인은 자기 시간과 노력을 고용주에게 파는 자이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법에 저촉되거나 비양심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불복종하여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때 고용주가 듣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둘 권리가 있다.
3. 성경(엡 6:5)은 “주님께 하듯 고용주에게 하라” 말했다. 고용된 사람은 자기를 고용한 이에게 성실하게 충성하여야 한다.
4. 사장이 있을 때는 성실하게 일하지만 없을 때는 불성실하게 일을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항상 주님이 보시듯 일하라 함이다. 주님은 이런 이들에게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5.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으로부터 되갚음을 받을 것이다(엡 6장).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고서 해야 한다. 그러면 일의 효율도 커지고 장래에 상급도 받는다. 보통 차 마시는 시간은 “10-15분”이다. 그 이상의 시간은 사장의 것으로 그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와 책임이 동등하다. 이 땅에서 법망을 피한 악덕 기업주도 내세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모든 이의 의도와 행위를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결국엔 뿌린 대로 거두신다.
7. 성경(딤후 6:1)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말씀이 훼방을 받지 않으리라”고 하였다. 성도가 직장에서 사장을 위하여 성실하게 섬기면 그 사장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올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면 동료들도 감동을 받아 전도되어 구원을 받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8. 사장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피고용인에게, 피고용인은 사장에게 해주라는 것이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일의 효율도 극대화 될 것이다.

## 제128공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성경본문: 다니엘 6:1-5 ; 로마서 13:1-8 ; 베드로전서 2:13-17

보조성구: 마태복음 22:21 ; 디모데전서 2:1,2 ; 대도서 3:1

요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전도서 10:20)

성경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한 가장 좋은 실례는 다니엘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왕가의 후손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청년으로서, 동족과 고국을 떠나 이방에 강제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도성의 궁성에 있게 된다. 그는 노예상태에서 그들을 증오하고 원한과 악감정을 느끼기가 더 쉬웠을 그런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많은 시련과 여러 해의 봉사를 거쳐 이방환경에 순응하였다. 이에 이방의 아무도 그에 대해 흠을 잡을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에는 모함자들이 하나님과 다리오 왕 사이에 양자택일 하도록 그를 몰고 가게 된다. 그만큼 다니엘은 바벨로니아와 메데와 페르시아의 시민법을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복종하였고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왕 다음 가는 최고의 실권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 법 집행자가 되었다.

1. 청년 다니엘은 포로상태에서 자기의 “권세에 대한 협동심과 복종심”을 그 권세에 대한 호소력과 어떤 식으로 조화시키고 있는가?(단 1:1-6)

2. 왜 바울과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는 교훈을 했을까?

3. 당신이 알고 있는 두 가지 법 조항을 들고 거기에 복종할 때 오는 이득을 말하라.

4. 로마서 13:5절에서 법을 지키는 두 가지 동기들을 들라.

5. 최근의 신문기사에서 법을 사소하게 어김으로 해서 결국 큰 문제가 되버린 경우를 들라.

6. 우리 신자들은 현존하는 조세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7. 가령 당신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신앙고백을 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는가? 그 이유는?

## 해 답

1. 바벨론에 도착하자마자 왕실학교의 학생 감독자에게 찾아가 왕의 고기와 술(분명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을 것이다)대신 채소와 물만 마시게 해달라고 호소한다. 우상에 바쳐진 왕의 진미들을 먹으라는 왕의 명령에 신앙 양심상 협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왕이 신임하는 감독자의 애정과 신뢰를 얻은 후 거기에 협조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2.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롬 13:1-3 ; 벰전 2:13-17). 성경의 “관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라는 말씀은 바울의 그 권고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의 순종인 것을 보여준다(롬 13:3). 성도가 정부 관리들에게 순종하면 아무 것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또 기독교적인 법 정신에 기초한 법률이 지배하는 자유 민주주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큰 특권임을 깨닫는다.

3. 법률은 엄격함을 특성으로 한다. 그럼에도 법을 준수하면 우리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온다.

4.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맑은 양심의 소유이다. 법을 어기면 양심의 두려움이 생긴다. 법을 어김으로 오는 결과가 당장은 안 오더라도 그 고통과 형벌이 결국에는 오고야 만다(민 32:23 ; 롬 13:2,4). 구약성경의 여리고 성의 아간을 생각해 보라(수 7장).

5. 각자 토론해 보라.

6. 다른 법률과 똑같이 정직하게 조심해서 지켜야 한다. 우리가 세금을 내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롬 13:6,7). 성경(벧전 2:13,14)에서 하나님은 나라 법에 순종하라고 명령한다.

7. 은밀히 예배하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든가... 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할 수도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후자가 전자보다 우위이다(행 5:29). 그럴 경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인간의 법에 저항하여야 한다. 모세의 모친, 히브리인 세 소년들, 다니엘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 제129공과 혼인의 책임

성경본문: 에베소서 5:22,32 ; 마태복음 19:3-6

보조성구: 창세기 2:18,22-24 ; 베드로전서 3:1-7

요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세기 2:24)

모든 인간관계 중 제일 가까운 관계는 결혼으로 시작된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세우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남자)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는 아내가 “남자의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가까운 동무라는 것과 또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 중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남편임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도, 슬픔도, 역경도 나누고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복돋워줄 수가 있다.

1. 성도의 혼인은 신랑 신부 두 사람이 그리스도께와 서로에게 온전한 서약을 하는 것이다. 그 무엇도 이 서약을 보류하지 못한다. 이 혼인은 서로의 신실성과 하나됨을 보증하는 것으로, 이로써 양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의도대로 될 수 있는 도움을 입는다. 이 혼인에는 서약과 함께 책임이 따른다. 신랑 신부 양자가 져야될 책임을 들라(참조 본문 외에 신 6:6,7 ; 딤후 5:8)

2. 하나님은 능히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성도의 혼인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과 신혼부부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단련하신다. 그러나 이것도 신혼부부가 자기네를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지시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가능하다.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혼인의 영적 책임을 완수 할 수가 있는가?

3. 남자와 여자가 혼인서약을 한 후에는 비로소 혼인하여 삶을 시작하게 된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6)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4. 결혼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 부부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미연에 제거된다. 이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지시들을 내리고 있다. 성경적인 권위부여와 책임 할당으로 엄격한 부부관계가 초래되기 보다는 도리어 가정의 질서와 이해가 촉진된다. 바울 사도가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한 말씀의 뜻을 설명하라.

5. 하나님의 인도아래 결혼한 부부는 모두에게 만족한다. 곧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위하여 지으심 받은 것을 깨닫고 여자는 남자가 자기 없이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을 자신의 확대판이며 완성품으로써 소중히 여긴다. 이 생각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엡 5:29)라는 말씀을 사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라.

6.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인한 사랑의 유대는 성경에서 신부인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단단한 유대의 실례로써 이용되고 있다. 이 양자 간의 유사성을 열거하라.

7. 부부는 항상 서로에게 “사랑하오”나 “존경하오”의 표시를 말로나 태도로 나타내야 한다. 그런 관심을 보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들라(벧전 3:5-7).

8. 부부는 자기네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과 또 “이후 계속 함께 행복한 결혼생활을 즐기게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 해 답

1. 남편과 아내는 죽음이 서로를 데어놓을 때까지(막 10:9, 롬 7:2) 서로에게 신실성을 지켜야 한다. 가정은 부부가 혼인함으로써 비로소 작된다. 자녀들을 낳고 양육할 책임들과 가정의 재정과 영적 책임까지도 져야 한다.

2. 부부는 기도 중에 자기 책임을 주께 여쭙 보아야 한다. 그러면 부부는 더욱 가까워진다. 인생의 책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감당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것이다.

3. 이혼, 재혼, 간음에 대한 성경의 기준을 묵상하라(마 5:32, 막 10:6, 눅 16:18, 롬 7:3). 성경은 “무죄한 쌍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단지 배우자

가 살아 있는데도 이혼한 사람(남자든 여자든)이 다시 결혼하면 그 사람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이혼한 그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고만 하였다. 물론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이 가능하다.

4. 하나님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도록 계획하셨다(엡 5:22-24).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그럼에도 이 말씀은 남편에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명령한다(엡 5:28). 이는 남편이 머리이기는 하여도 어디까지나 아내의 욕구와 소원을 염두에 두고서 모든 문제를 잘 협의하여 일 처리를 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5.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를 즐겁게 하려함같이 아내를 즐겁게 할 방도를 찾을 것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 사랑은 “먼저 주려고 하는 것”이다.

6. 그리스도께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듯 교회의 머리이시고(엡 5:23), 또 부부가 서로에게 자신들을 주듯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며(엡 5:25),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사모하며 소중히 여기듯 교회에게 그같이 하신다(엡 5:29). 또한 연합과 하나됨이 겉으로 나타난다(엡 5:30,31).

7. 항상 서로 간에 화목하여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이다.

8. 부부생활이 성공적이고 행복하려면, 항상 함께 하여야 한다. 기도, 성경공부, 이야기,,, 등을 함께 하면 부부는 서로 간에 좋고 나쁜 감정이나 다툼 등을 두렵 없이 나눌 수가 있게 된다. 삶의 희로애락을 주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눌 때 그 결혼생활은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행복할 것이다.



## 제130공과 부모의 의무와 자녀의 의무

성경본문: 부모의 의무 : 신명기 6:7 ; 고린도후서 12:14 ; 에베소서 6:4 ; 디모데전서 3:4 ; 디도서 2:4 / 자녀의 의무 : 신명기 27:16 ; 잠언 20:11 ; 에베소서 6:1-3

요절: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에베소서 6:4)

지금껏 수많은 교육자들과 심리학자들과 전공학자들이 어린이 교육과 양육에 관한 책들을 써냈다. 그들은 이렇게 혹은 저렇게만 하면 인류의 온갖 병폐들이 크게 감소하리라고 느끼는 양 싶다. 그러나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 것은 참으로 슬프다. 만일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어린이들을 교육한다면 온 세상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1.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라.

2. 잠언 22:6절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를 설명하라. 부모는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목표”에 이르도록 하려고 자녀들의 교육과 훈련에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 붓는다. 그러나 자녀들의 영혼구원에 우선적으로 목표를 둔다면 영적 훈련에 어떤 우선권을 두게 되겠는가?

3. 바울은 성경(고후 12:14)에서 고린도교인들이 그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원하는 자기 나름의 이유를 진술한다. 그는 여기서 부모의 어떤 의무를 언급하고 있는가?(딤후 5:8)

4. 아버지의 의무는 자녀를 바로 잡아 훈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라도! 이와 관련하여 오늘의 주 요절의 뜻을 설명하라.

5. 바울은 젊은 여자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권면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정적인 상황들을 들어보라.
6. 오늘 성경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고 했다. “공경한다”의 뜻과 우리의 장수와 관계를 설명하라.
7. 잠언 20:11절의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를 풀이하라.
8. 잠언 23:22절의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옛적에 씌여진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적용될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9. 모세율법 아래서는 부모를 공경치 않거나 멸시하면 그 자녀들에게 저주가 선포되었다. 이와 비슷한 법이 오늘날에도 어떤 식으로 강제될 수가 있는가?
10.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들라.

## 해 답

1.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셨다(신 6:6,7).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은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되고 또 그들이 천국을 영혼의 본향으로 삼게 해준다. 많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다.
2. 돈 버는 훈련이나 운동훈련이나 사교적인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뜻한다. 어릴 적부터 기도, 회개, 용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믿고 순종함... 등을 우선적으로 가르칠 것이다.
3. 부모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천

부께서 자기 자녀들을 돌보심과 비교하라. 자녀가 부모와 함께 가정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한 유익이 오나, 가정을 떠나면 그 유익도 사라진다. 우리도 천부를 떠나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여 주심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4. 어디까지나 자녀를 인격체로 대하면서 훈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훈계하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훈계의 태도를 묵상하라.

5. 어떤 훈련도 교육도 사랑으로 해야 열매가 있다 오늘날 가정에서 사랑이 결핍되어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양산되고 있음을 묵상하라.

6. 사전적으로는 “크게 공경하다. 높이 여긴다. 존경한다”이다. 불경하면 그 마음에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일 것이다. 반면 공경하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자기 부모와 연장자들에게도 같은 정신으로 대하면 화목한 삶과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7. 품행방정하고 순종적인 아이는 주변에 즐거움을 주나 말 안 듣고 고집 센 아이는 주변을 혼란케 한다.

8. 그러하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잠언 기록자에게 영감을 주시어 그 말씀을 받아 적게 하신 그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바울에게도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사셨다(엡 6:2).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는다.

9.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하던 때는 그들이 받은 그 율법에만 복종하여야 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강제한다. 모세시대 때처럼 지금도 그 부모를 공경하여 순종하라 하신다. 불순종은 죄가 되며, 그 행위는 하나님이 보관 중인 책에 낱알이 다 기록된다.

10.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돈도, 건강도, 교육도, 여행도, 스포츠와 오락도 세상의 그 무엇도 가정의 참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